

500년의 조선시대 당파간의 싸움은 임진왜란 직전 선조가 통치하던 때, 이조전랑 자리에 누굴 뽑을 것인가에 대한 대립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이조전랑의 후보에는 김효원·심충겸 두 사람이 올랐다.

세상은 협조해 살아가는 공간

김효원 집은 동쪽 건천동, 심충겸의 집은 서쪽 정능동에 살아서 그의 지지자들은 동인과 서인이라 부른 것이다. 그후에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져 싸웠고 서인도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져 싸웠다.

이 네 당파는 심한 당쟁으로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 당쟁의 첫 희생자인 조의장 남 소현세자의 죽음은 아마 서인들의 독살이었을지도 모른다. 또 한사람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는 결국 노론의 계략으로 뒤주 속에서 죽고 말았다. 이와 같이 한시대의 당쟁 흑백논리는 적을 만들기도 하고 희생자도 여러가지 형태로 나온다.

그로서 사고(思考)의 균형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흑백논리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사람을 평가할 때 '좋다, 나쁘다'라는 식으로 평가를 내리는 것이 문제이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우리가 조선 역사를 보더라도 대체로 이런 흑백논리의 사고형태를 가진 사람들이다. 효과적인 인간관계의 제법칙은 흑백사고를 벗는 것이다.

사람을 흑백논리로 평가하기 시작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의 수만큼 동일한 적이 생긴다. 내 인생의 적을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어느 책에서 읽은

전매광장



조영환 수필가

흑백논리는 적을 만든다

한 의사의 말이 떠오른다. "사람은 일이 힘들어서 죽는 법은 절대로 없다. 다만 스트레스를 견디기 어려워 죽을 뿐이다."

당신이 지금 피곤에 지친 상태라면 이 말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진단해 보라. 그것이 일 때문인지,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인지 명확히 하라.

당신의 스트레스가 인간관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인간관계에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사고에 여유를 갖고 당신의 정해진 사고의 벽을 허물어 보라. "저 사람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나라면 절대 저렇게 행동하지 않아!"라고 말하며 선을 긋고 싶을 때 "저럴 수도 있었구나!"라고 여유를 가져 보라.

흑백논리는 적을 만드는 가장 나쁜 사고 중 하나이다. 세상에 절대적으로 옳은 일이란 없다. 단지 당신이 그런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당신과 비슷한 성품이 옳다고 인정할 뿐이다.

자기 이익을 위한 의도적인 속임수나 공공의 악을 조장하는 것만 아니라면 모든 것이 옳다. 이 세상은 서로가 살아가는 협력의 공간이다.

신이 제일 싫어하는 정당은 어떤 사람이 지지할 수 있다. 당신이 혐오하는 사람을 위해 선거유세를 해줄 수도 있다. 당신이 죽도록 미워하는 누군가를 어떤 사람은 죽도록 사랑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상대와 내가 다르듯 서로의 의견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세상에 절대적으로 옳거나 절대적으로 나쁜 사람은 없다. 당신이 옳고 상대편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야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것은 당신의 적을 한 사람 더 만드는 것 외에 아무 가치도 없는 일이다. 옳고 그름의 정

의를 올바르게 내리라.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다 이웃이요,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라는 사실뿐이다.

서로의 의견차이 받아 들여야

세상은 싸움의 공간이 아니라 협력의 공간이다. 흑백논리로 무장해서 상대방을 누르고 의기양양해지는 것은 옳은 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 당신이 옳바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상대방을 거짓으로 몰아가는 행동이야말로 거짓이다. 당신이 상대방을 누르는 순간 그 사람은 영원히 당신의 적이 되기 때문이다.

서로의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누구는 옳고 누구는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당신도 옳고, 그 사람도 옳고, 나도 옳을 수 있다. 당신과 그 사람이, 그 사람과 내가, 나와 당신이 서로 다른 견해도 불구하고 친구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옳은 것이다. 생각의 법칙은 생존의 법칙을 우선 시배한다. 사람은 좋은 일보다 나쁜 일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한다.

좋은 것이 아홉 가지가 있어도 나쁜 것 한 가지를 찾아서 불만을 나타내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다. 이런 불만은 흑백 논리를 평소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듯 아무리 흑백 논리로 정당한 길이라고 자기주장을 펴도 그로 인해 결국 당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히 흑백 논리 말을 만들어 토하거나 허상을 실상같이 꾸며가며 일하기를 즐기는 정치인은 언제 자신이 사라지거나 타인을 사라지게 만든다.

사설

도시철도 2호선 조속 결론내려야

민선7기 광주시가 당면한 대형 현안에 대한 방향 정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광주 도시철도2호선 건립의 공론화 방식과 현대차 완성차공장 투자협약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민선7기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는 점에서 신속한 결론이 필요하다.

민선6기 저수도 지하철 방식으로 결정된 2호선 건설이 가장 급하다. 이 현안은 이용섭 시장이 지방선거 후보 시절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약속하면서 이번엔 공론화 방식을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추진 중인 대형 현안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린 듯해 아쉽다.

하지만 기왕에 공론화 방식이 논란 대 위에 놓인 만큼 어떤 식이든 신속한 결론이 필요하다. 여론의 갈등 양상이 갈수록 커져가는 탓이다. 특히

이같은 갈등 양상이 길어질 경우, 다른 시장 현안에도 큰 부담을 줄 수 있기에 더욱 그렇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속의방식 조사를 하다 보면 그 기간이 5개월 안팎으로 길게 소요된다 한다. 무려 16년간이라는 장기간의 도시철도2호선 피로도가 극에 달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가 할 수 밖에 없다. 이 시장의 조속한 결단이 필요한 이유이다.

광주 도시철도2호선 건설 문제가 찬반으로 갈려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게 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안타깝다. 다행히 이 시장은 휴가가 끝나는 대로 관련 입장을 내놓을 것이란 대로 관련 입장을 내놓을 것이란 대로 광주시민들이 피로감을 더 이상 겪고 싶지 않다는 점을 새길 필요가 있다.

여고 '성희롱 파문' 철저히 조사해야

광주지역 한 여고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다. 학교 전체 교사들의 20% 가까이

가 수사의뢰 대상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상황이 심각한 만큼 이 학교 일부 교사들의 잘못된 행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아야 할 일이다.

이 학교에선 몇 년 전에도 성희롱 문제가 불거져 교직원 전보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측은 당시 문제된 교사들을 관할 교육청이나 경찰 등에 고소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인식을

올렸다. B교사도 이 학교 다른 여고생을 영화관 등에 데리고 다니면서 승용차 안에서 추행했다는 것이다. 사실이든 아니든 교사로서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충격적이다.

학교 측은 교사들의 성비위 사실이 퍼지자 내부 조사를 거쳐 그해 5월 감봉 1개월의 징계조치를 했다. 하지만, 이를 경찰이나 외부에 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매듭지으려 했더니 이

해가 되자. 학교측은 당시 문제된 교사들을 관할 교육청이나 경찰 등에 고소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인식을

올렸다. 학교측은 당시 문제된 교사들을 관할 교육청이나 경찰 등에 고소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인식을

올렸다. 학교측은 당시 문제된 교사들을 관할 교육청이나 경찰 등에 고소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인식을

올렸다. 학교측은 당시 문제된 교사들을 관할 교육청이나 경찰 등에 고소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인식을

올렸다. 학교측은 당시 문제된 교사들을 관할 교육청이나 경찰 등에 고소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인식을

올렸다. 학교측은 당시 문제된 교사들을 관할 교육청이나 경찰 등에 고소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인식을

올렸다. 학교측은 당시 문제된 교사들을 관할 교육청이나 경찰 등에 고소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인식을

올렸다. 학교측은 당시 문제된 교사들을 관할 교육청이나 경찰 등에 고소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인식을

올렸다. 학교측은 당시 문제된 교사들을 관할 교육청이나 경찰 등에 고소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인식을

올렸다. 학교측은 당시 문제된 교사들을 관할 교육청이나 경찰 등에 고소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인식을

올렸다. 학교측은 당시 문제된 교사들을 관할 교육청이나 경찰 등에 고소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인식을

올렸다. 학교측은 당시 문제된 교사들을 관할 교육청이나 경찰 등에 고소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인식을

올렸다. 학교측은 당시 문제된 교사들을 관할 교육청이나 경찰 등에 고소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인식을

올렸다. 학교측은 당시 문제된 교사들을 관할 교육청이나 경찰 등에 고소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인식을

올렸다. 학교측은 당시 문제된 교사들을 관할 교육청이나 경찰 등에 고소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인식을

올렸다. 학교측은 당시 문제된 교사들을 관할 교육청이나 경찰 등에 고소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인식을

올렸다. 학교측은 당시 문제된 교사들을 관할 교육청이나 경찰 등에 고소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인식을

올렸다. 학교측은 당시 문제된 교사들을 관할 교육청이나 경찰 등에 고소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인식을

올렸다. 학교측은 당시 문제된 교사들을 관할 교육청이나 경찰 등에 고소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인식을

올렸다. 학교측은 당시 문제된 교사들을 관할 교육청이나 경찰 등에 고소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인식을

올렸다. 학교측은 당시 문제된 교사들을 관할 교육청이나 경찰 등에 고소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인식을

올렸다. 학교측은 당시 문제된 교사들을 관할 교육청이나 경찰 등에 고소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인식을

올렸다. 학교측은 당시 문제된 교사들을 관할 교육청이나 경찰 등에 고소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인식을

올렸다. 학교측은 당시 문제된 교사들을 관할 교육청이나 경찰 등에 고소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인식을

올렸다. 학교측은 당시 문제된 교사들을 관할 교육청이나 경찰 등에 고소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인식을

올렸다. 학교측은 당시 문제된 교사들을 관할 교육청이나 경찰 등에 고소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인식을

올렸다. 학교측은 당시 문제된 교사들을 관할 교육청이나 경찰 등에 고소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인식을

올렸다. 학교측은 당시 문제된 교사들을 관할 교육청이나 경찰 등에 고소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인식을

올렸다. 학교측은 당시 문제된 교사들을 관할 교육청이나 경찰 등에 고소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인식을

올렸다. 학교측은 당시 문제된 교사들을 관할 교육청이나 경찰 등에 고소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인식을

올렸다. 학교측은 당시 문제된 교사들을 관할 교육청이나 경찰 등에 고소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인식을

올렸다. 학교측은 당시 문제된 교사들을 관할 교육청이나 경찰 등에 고소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인식을

올렸다. 학교측은 당시 문제된 교사들을 관할 교육청이나 경찰 등에 고소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인식을

올렸다. 학교측은 당시 문제된 교사들을 관할 교육청이나 경찰 등에 고소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인식을

올렸다. 학교측은 당시 문제된 교사들을 관할 교육청이나 경찰 등에 고소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인식을

올렸다. 학교측은 당시 문제된 교사들을 관할 교육청이나 경찰 등에 고소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인식을

올렸다. 학교측은 당시 문제된 교사들을 관할 교육청이나 경찰 등에 고소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인식을

올렸다. 학교측은 당시 문제된 교사들을 관할 교육청이나 경찰 등에 고소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인식을

올렸다. 학교측은 당시 문제된 교사들을 관할 교육청이나 경찰 등에 고소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인식을

올렸다. 학교측은 당시 문제된 교사들을 관할 교육청이나 경찰 등에 고소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인식을

올렸다. 학교측은 당시 문제된 교사들을 관할 교육청이나 경찰 등에 고소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인식을

올렸다. 학교측은 당시 문제된 교사들을 관할 교육청이나 경찰 등에 고소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인식을

기고



한은경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센터장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세상에 나기도 전부터 이미 수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는데, 스트레스란 단어는 사건이나 상황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며, 특정경험에 대한 반응을 묘사할 때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단순한 자극이나 반응을 넘어서서 환경적 위협에 대처하는 과정을 가리켜 스트레스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심리학자 라

차루스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평가했는가에 따라 스트레스의 발생여부가 결정된다고 했다. 가령, 현재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폭염 자체가 스트레스일 수 있지만 폭염으로 인한 수면

곤란 반응 또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나아가 현재의 폭염 현상을 지구온난화로 인한 한반도 기후변화로 단정하고,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를 한다면 정서적 불안이 훨씬 심해질 수 있다. 즉, 스트레스원에 대한 평가 여부가 스트레스지각여부를 결정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애석하게도 우리는 스트레스 없이 살아갈 수도 없다.

지진과 같은 파국적 사건에서부터 실직과 같은 주요인생사, 그리고 줄어들지

않는 마트 계산대 줄과 같은 일상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트레스원이 우리 곁에 상주한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생각, 정서, 행동적 방법을 동원해서 이러한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일상의 평온을 되찾는 것이 상책인데,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각자가 지닌 마음의 필터이다.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에 대해 최대한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자신만의 필터를 확보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평가를 통해 결정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법은 문제중심대처(스트레스원을 직접 변화시키거나 상호작용하는 방식)와 정서중심대처(스트레스에 대한 회피와 무시, 혹은 정서를 다루는 방식)로 구분할 수 있다. 문제중심대처가 더 적응적인 대처가 될 수도 있지만 대처에는 개인차가 존재하며, 효과적인 대처에는 세가지 요인(통제력, 낙관성, 사회적지지)이 영향을 미친다.

도박자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의 필터는 매우 중요하다. 우연히 시작한 사교도박에서 하면 할수록 잃게 되는 필패구조로 빠져 쉽게 헤어 나오지 못한 그들과 함께 그들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다보면 다양

한 스트레스에 대한 마음의 필터를 비롯한 다양한 대처습성이 매우 빈약했음을 보게 된다.

회복과정은 자신의 과거와 삶에서 존재하는 수많은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자신의 대처가 현재의 도박문제와 매우 닮아있음을 발견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자신의 허물을 감싸 안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더불어 도박문제에 취약한 선행요인과 촉진요인, 그리고 현재의 문제를 유지시키는 요인에 대해서도 인식하게 한다. 나아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법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기회와 경험 또한 갖게끔 노력한다.

이 과정이 회복과정이자,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과정이기도 하니깐.

자신이 살아온 삶의 궤적을 자신을 응시하며, 바로 보게끔 하는 기회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주어질 수 있을까? 작업병적 바깥이 있다면, 이러한 화두를 습관적으로 꺼내 바로 볼 수 있었으면 한다.

우리 모두 마주하게 될 언제 어느 날, 고향의 숲으로 돌아가기 전에 유년시절의 내가 되어 스스로에게 되돌아보듯한 말, "어떻게 살아왔습니까?"를 말하다.

기고



김형묵

대한건설협회 전라남도회 부장

혁신성장 위해 규제개혁 속도 높여야

의 상당 부분은 개인의 사회생활에 불편함을 줄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함으로써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었으며 불투명하고 모호한 규제들은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에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목소리가 올해 국민, 산업계, 정부 곳곳에서 들려왔다.

사실 규제개혁은 역대 정부 때마다 단골메뉴중의 하나였지만 국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체감도는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외형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규제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규제는 하나를 없애더라도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어야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안전, 건설, 토지, 환경 등 기업 경영의 핵심분야에는 여러 부처에서 중복규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 경우

관련 부처의 이해가 조정되지 않아 형식적인 규제완화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법령상의 규제가 철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나 자치단체, 정부산하기관, 청 단위 기관의 내규나 지침, 관행 등의 규제는 잔존하고 있는 경우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으면서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규제가 많은 것도 이유 중의 하나이다.

그때도 동안의 규제개혁은 과거 경쟁력을 저해했던 시급한 규제철폐에 중점을 뒀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비교적 수월하게 추진돼 정부의 홍보처럼 일정부분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경쟁력 강화와 시장경제 촉진을 위한 핵심 규제들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핵심적인 규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실적과 외형적인 규제개혁에 치중하였다면 앞으로는 질적인 규제개혁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 도래라는 새로운 패러다

임에 맞춰 경쟁력의 핵심인 지식·정보·기술의 융합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정부주도형 경제발전을 전제로 만들어진 규제를 미래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폐지된 규제의 부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는 기존 규제를 반드시 폐지하도록 하는 등의 새로운 규제관리시스템의 도입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규제개혁의 효과는 20~30년 뒤에 나타날 정도로 효과가 느린 것들이 많다. 따라서 단기간의 외형적 성과와 효과에 초점을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규제개혁은 한 때 유행하다 사라지는 정책이어서는 안된다.

국민생활의 편의와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독자광장 '술 먹고 실수할 수 있지'... 실수 아닌 범칙

술은 잘 마시면 약이 되고, 잘못 마시면 독이 된다. 이제는 잘못된 음주문화와 술에 취해 하는 행동에 대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온정적 사회 분위기는 변화되어야 한다.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해 경찰 뿐 아니라 국민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게 됐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경범죄 처벌법상 관공서 주취 소란은 중전보다 더 엄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2013년 3월 경범죄처벌법 일부 개정으로 관공서 주취소란자에 대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 난동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주취자 소란행위를 근절하고 있다.

술에 취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너무 지나친 처사라는 의견도 있지만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주취 소란 행위가 상습화 된다. 이로 인한 경찰력 낭비로 손

각을 다루는 강력범죄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강력한 제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

관공서 주취 소란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범칙행위를 명심해야 한다.

/이홍 곡성경찰서 읍내파출소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차원익 사장·발행·편집인 김용수 사무이사 겸 편집국장 이동호 논설실장 정정호		대표전화(062)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98, 010-4601-5323			
기사제보 (062)720-1050~56	사회 2부 (062)720-1043~44	인쇄처	다원 인쇄		
F A X (062)720-1080~82	문화부 (062)720-1071~72	기사제보	jndn@chol.com		
는 설 실 (062)720-1032	전 선 팀 (062)720-1033	사 진 부 (062)720-1040	광고문의 720-1017		
정 치 부 (062)720-1060~62	경 제 부 (062)720-1066~67	광 고 국 (062)720-10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 회 부 (062)720-1050~53	우) 61234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2(중흥동, 삼산빌딩)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39	▲법률구조상담	12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3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고장 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3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232-3117	▲전남대병원	220-6900
		▲조선대병원	220-3114